

-(으)ㄴ 겸

~도 할 겸, 검사겸사

첫 번째 목적과 함께 두 번째 목적을 나타냅니다. 한 번의 외출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, 한국어에서는 이 구를 두 번 겹쳐 두 목적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겸	쉬다 → 쉴 겸
자음으로 끝남	-을 겸	먹다 → 먹을 겸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겸
두 목적 나열	-(으)ㄴ 겸 -(으)ㄴ 겸 해서	쉴 겸 볼 겸 해서
명사 사이	명사 겸 명사	아침 겸 점심
띄어쓰기	겸은 명사	쉴 겸, 아침 겸 점심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ㄴ 탈락형을 포함한 표준 규칙을 따릅니다: 만들다 → 만들 겸. 겸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대표적인 패턴은 겸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: -(으)ㄴ 겸 -(으)ㄴ 겸 해서—하나의 행동에 대해 두 가지 목적을 나열합니다. 바람도 쉴 겸 운동도 할 겸 해서 걸었어요.

두 목적은 모두 같은 사람의 것이며, 행동은 하나입니다. 서로 다른 두 활동을 연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.

명사와 쓰면 겸이 두 가지 역할이나 기능을 바로 연결합니다: 아침 겸 점심, 서재 겸 침실, 대표 겸 감독.

■ 예문

- 1 바람도 쉴 겸 운동도 할 겸 해서 걸었어요.
- 2 친구도 만날 겸 서울에 다녀왔습니다.
- 3 공부도 할 겸 카페에 자주 가요.
- 4 선물도 살 겸 백화점에 들렀어요.
- 5 직접 만들 겸 재료도 구경할 겸 시장에 갔어요.
- 6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김에
김에는 이미 계획된 행동에 두 번째 행동을 더하고, 겸은 하나의 행동에 두 번째 이유를 붙입니다. 뜻이 가까워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나가는 김에 우유 사 와. (나가는 김에) / 바람 쉴 겸 나갔어요. (바람도 쉴 겸)

-기 위해서
위해서는 하나의 주된 목적을 나타내고, 겸은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더 가볍게 제시합니다.
운동하기 위해서 걸어요. (운동을 목적으로) / 운동도 할 겸 걸어요. (운동도 겸해서)

명사 겸 명사
명사 사이에서는 한 대상의 두 가지 역할을 연결합니다: 아침 겸 점심, 서재 겸 침실, 대표 겸 감독.
아침 겸 점심 (아침 겸 점심 식사) / 서재 겸 침실 (서재로도 침실로도 쓰는 방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들들 겸 시장에 갔어요.
- 직접 만들 겸 시장에 갔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- ✗ 제가 공부할 겸 동생이 놀았어요.
- 제가 공부도 할 겸 카페에 갔어요.
두 목적은 하나의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것입니다. 주어가 서로 다르면 절을 나누어야 합니다.
- ✗ 늦게 일어나서 아침겸 점심을 먹었어요.
-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.
겸은 명사이므로 앞뒤를 모두 띄어 씁니다.